

광주 광공업 생산 증가율 24% 전국 최고

건설경기 침체에 건축 착공면적 25.9% 감소 전남 광공업 식료품 등 부진 영향 0.4% 줄어

자동차 수출 호조로 지난 3분기 광주의 광공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24.0% 증가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 착공면적은 전국 최고의 감소폭을 기록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광주가 지난해 3분기보다 24.0% 급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0.7%), 경남(17.1%), 대구(16.3%), 전북(15.4%), 충남(10.7%) 등도

투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장비 등 수출 주도 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 지역의 생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의 3분기 광공업생산은 -23.7% 급감했고 경북(-4.3%)과 서울(-2.7%), 전남(-0.4%)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식료품과 영상의향기 등의 업종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대형 소매점 판매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강원(21.2%)과 충북(13.4%), 부산(13.3%), 대전(11.4%), 전북(10.7%) 등이 투자리수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울산(3.4%)과 서울(3.3%), 경기(2.5%)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취업이 부진한 전남(-4.8%)과 제주(-2.8%), 전북(-1.3%), 강원(-0.1%) 등은 감소했다. 생활물가는 경남(3.8%)과 제주(3.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3.7%), 전북(3.5%), 경북(3.5%) 등도 전국 평균(3.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건축 착공 면적은 광주가 지난해에

비해 -25.9%를 기록해 가장 많이 줄었고 대구(-14.5%), 경기(-14.1%), 강원(-11.6%)도 주거용과 상업용 착공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제주(79.3%)와 대전(74.4%), 울산(55.4%) 등은 큰 폭으로 늘었으며 전국 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은 전북(51.2%)과 인천(32.9%), 충남(32.7%), 부산(31.8%) 등이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로 크게 증가했다. 광역권별로는 충청권은 생산과 고용,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대구경북권은 생산이, 호남권은 고용이 감소로 전환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산은금융그룹 경영진 광주서 간담회 지역 기업 애로 듣고 지원방안 모색

산은금융그룹 민유성<사진 앞 줄 오른쪽>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10일 오후 광주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대연회장에서 대우증권·kdb생명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지역과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산은금융그룹 임직원들은

호남지역 주요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을 초청해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One Heart Concert' 문화행사를 가졌다. 민유성 회장은 "연초부터 시작된 현장마케팅 및 현장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를 두번째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심을 반영한 눈높이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다가서겠다"고 강조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금 3.75g(1돈) = 22만5000원

금값 고공행진... 금투자 관심 커진다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400달러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파는 금 관련 상품의 수익률이 덩달아 상승해 투자자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값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 상품 수익률 '쑏쑏'=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실물 거래 없이 원화로 통장에 입금하면 금을 적립해주는 은행권의 금 적립계좌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신한은행 '골드리쉬'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21.92%이며 6개월 수익률은 12.68%로 비교적 높다.

달러로 가입해 환차손을 피할 수 있는 '골드리쉬 달러앤드골드테크 통장'도 최근 3개월간 28.28%의 수익률을 올렸다.

기업은행의 금 적립계좌 '원클래스 골드뱅크'와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수시입출금식 금 투자상품인 'KB골드투자통장'의 1년 수익률은 각각 22.3%와 21.36%에 달한다.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연초 이후 수익률 분석이 가능한 금 관련 대표 클래스 펀드 12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10개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금 투자, 지금도 안 늦었다=최근 금값이 많이 뛰긴 했지만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12개월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1천6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 상품개발부의 문성원 과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 매수세가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 관련 펀드 투자에 나서려면 금값과 환율 움직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 한 돈에 22만5천원, 돌 반지 팔까=한국귀속판매업중앙회에 따르면 9월 기준 순금(24K) 한 돈(3.75g)의 소매가격은 22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집에서 보유 중인 금 제품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팔 때는 소매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귀속판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소매가격은 22만원이 넘지만 현재 순금 한 돈을 팔면 부과세와 마진 등을 제외하고 19만원대를 받을 수 있다"며 "금 제품과 가게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직장인들이 느끼는
정년퇴직 나이는?

48.2세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정년퇴직 연령은 48.2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정년퇴직 연령은 평균 48.2세로 집계됐다.

체감 퇴직 연령을 응답자의 소속 기업에 따라 분류하면 공기업 52.2세, 대기업 47.8세, 중소기업 47.3세, 외국계기업 47.2세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74.5%는 정년 때까지 고용 안정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질문에도 4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 중 69.4%는 정년 연령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해당 연령까지만이라도 고용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실업률 전국 최저? 비경제활동인구 늘어 수치만...

광주·전남지역 10월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 비롯된 수치상의 호전일 뿐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10월 중 실업자는 1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41.3%) 감소했고 실업률은 2.2%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또 전남의 실업자는 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000명(56.6%) 증가했고, 실업률은 1.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3.3%를 밑돌고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2%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전남도 제주(1.4%)에 이어 충북(1.9%)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실업자가 줄어든 때문이지만, 이들이 취업자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육아나 가사, 학원 등 통학, 취업 대기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로 이어져 고용의 질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속빈강정

실제로 광주의 취업자는 6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고용률은 56.4%로 오히려 0.9%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지역도 취업자는 8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3000명(3.6%) 감소했고 고용률은 62.6%로 2.5%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6000명으로 3만명(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수의 보장' 불법 자금모집 기승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고수의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고수의 보장 조건을 내걸고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수

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사업에 가장 많은 업체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수산업 및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이 22건이었다. 부동산투자, IT(정보기술) 사업, 유통업소 운영을 미끼로 내건 업체도 있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67.85 (+20.39)
▲ 코스닥지수	528.27 (+1.34)
▼ 금리 (국고채 3년)	3.51% (-0.07)
▲ 원·달러 환율	1,110.20원 (-3.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보행)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안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 당일입: 16:3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
★ 포함내역: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안라산 등반 15,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 승수기 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안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안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 농 립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협찬 남해고속 씨월드고속웨리**
www.jejumt.net

Angelo

안젤로는 이태리어로 천사입니다.

이태리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안젤로 오픈기념 20% OFF 11월 30일 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307-1 화정동사거리 구, 푸조전시장
062-382-0022, 381-3388